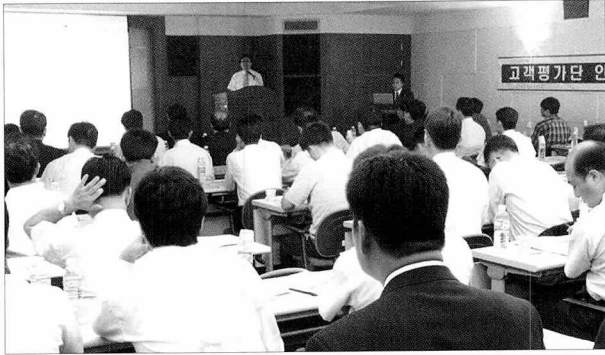


## 한솔제지, 2005년 2차 기술교류회 개최



한솔제지(주)는 지난 9월9일 구로디지털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KIKOX 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인쇄사, 지류유통사 및 인쇄현장 책임자 및 관리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2차 고객평가단 인쇄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잉크건조 트러블 유형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술교류회에서는 윤중태 부경대학교 화상정보공학부 교수가 첫 발표자로 나서 '잉크건조의 원리와 측정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인쇄공학 박사 KPT(주) 이만교 대표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트러블 슈팅의 실제'와 관련 건조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손창만 한국제지기술연구소장이 한솔제지 대표 브랜드인 Hi-Q 밀레니엄 아트와 Hi-Q SC 지층에 대한 특징과 최근에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으며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 RE·Rembers 고종완 대표의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 전략'에 대한 강의로도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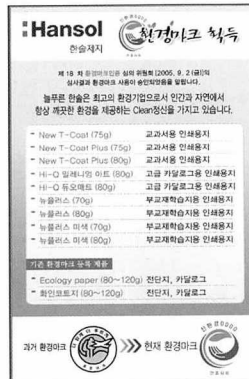
한편, 이날 기술교류회에서 문주호 한솔제지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 인쇄산업의 발전이 한솔제지, 나아가서는 제지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교류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인쇄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한솔제지는 '품질절대우위 확보'라는 경영방침 아래 2004년도부터 '고객맞춤 품질시대', '최고의 품질 균일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한솔제지, 40주년 기념 종이학 접기 이벤트

한솔제지는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그룹 창립 40돌 기념, 불우이웃 돕기 행사인 종이학 접기 이벤트인 '한솔인의 마음을 모아'를 개최했다. 그룹 창립 40돌을 축하하고 발전을 염원하는 종이학 접기(개인별 1마리 이상)행사를 통해 한솔제지는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우이웃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번 행사의 목표금액은 1억원이었으며 팀 또는 반별로 모여 실시됐다.

## 한솔제지, 환경마크 총 8종 획득

창사 때부터 에너지 절감노력을 기울이며 용수 및 전력 재활용을 시스템화하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솔제지의 환경마크 획득 제



품이 총 8종으로 확대됐다. 한솔제지는 각 사업장을 국가에서 정한 환경법규보다 2배 정도 높게 책정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자연, 문화, 인류의 만남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는 한솔'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환경현장을 선포하고 환경친화기업지정, 환경마크 획득 등의 환경친화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9월9일부터 기존 환경마크협회로부터 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지정하는 환경마크를 획득한 친환경상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제품으로 선정돼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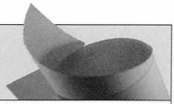
2005년도에 환경마크를 취득한 제품은 New T-Coat 75, New T-Coat Plus 75·80, Hi-Q 밀레니엄 80, Hi-Q 듀오매트 80, 뉴플러스 70·80, 뉴플러스 미색 70·80 등 6종이고 기존의 환경마크 제품인 Ecology, 확인코트 등을 포함 총 8종이다. 또한 백판지는 GR 마크를 받았다.

## 신무림제지, 고객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신무림제지는 지난 8월19일 본사 Refresh room에서 고객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범창지류판매, IPP 등 40여 명의 고객사 영업 및 출고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KMAC 임미연 강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당사 유통사 및 실수요 고객사 접점 고객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당사 출고 담당자들과 고객간 커뮤니티 모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 강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상담 서비스 향상 및 고객 만족 기법과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을 실제 업무에 유용했다며 큰 만족을 표현했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은 마우스와 쿠션, 방석 등 사무실에서 유용한 선물을 받았으며 교육 이후에는 당사 출고 담당자 및 영업사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겸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마케팅 팀 노희동 팀장은 "유통사 및 실수요 고객사에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획된 교육인 만큼 영업 및 출고 업무 담당자간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해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보다 세분화된 고객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무림제지, PI 프로젝트 킥오프

신무림제지는 지난 9월6일 전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PI 프로젝트 킥 오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 임직원은 물론 IBM BCS, SAP 코리아, LG CNS 등 관련 협력사들도 참석해 PI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의지를 모았다. 이로써 신무림제지는 선진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PI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김인중 사장은 "PI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글로벌 제지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화살이 과녁을 향해 떠났다"며 "정확한 시간과 강도로 화살이 과녁에 꽂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신무림제지는 총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PI를 통해 기존의 시스템과 문화를 혁신, 선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이익 규모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림제지, 카자흐스탄 유전 본격개발

백판지 제조업체인 세림제지가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에 본격 나섰다.

세림제지 측은 지난 9월12일 "그동안 지분 인수와 현지 협의 등 탐사준비를 마치고 웰포인트(시추공)를 찾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개발권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악토베 주 2개 광구의 추정매장량은 1억배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원유 도입량이 연간 8억배럴임을 감안하면 약 1.5개월 분에 해당한다. 현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어 단순 계산으로는 60억달러(원화 6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림제지는 이 중 절반의 권리를 갖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해상유전이 아니고 육상유전인데 대다 인근에 개발된 유전이 있어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되므로 경제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세림제지는 지난 6월 말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을 위해 지브롤터 소재 아크렛 사에 148억원을 투자, 이 회사 지분 50%를 취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아진제지, 워크아웃 들어가

과다한 투자로 자금난을 겪어오던 대구 소재 골심지 전문업체 아진제지공업이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관계 회의를 열어 아진제지공업의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여 500억여원에 달하는 모든 채권행사를 잠정 중지하고 3개월 동안 기업 실사를 벌인 뒤 회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350억원을 투입해 연간 15만톤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왔던 아진제지는 내수 침체와 맞물려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채권단은 일단 아진제지 정상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정태화 회장은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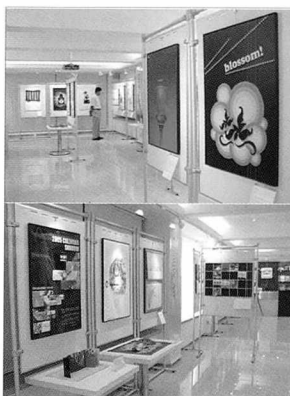
## 신호제지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신호제지 경영진과 대주주인 아람파이낸셜서비스(아람FSI)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람FSI는 지난 9월2일 수원지방법원에 신호제지의 이사 등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청구했다. 아람FSI는 지난 8월5일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경영진에 요청했으나, 신호제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법원에 허가 신청 청구를 냈다. 아람FSI 측은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하는 것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데 신호제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10월 중순 경이면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람FSI는 신호제지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채권은행들과의 대출약정서 상 재무약정 미준수 위험, 이순국 신호제지 회장의 사직 의사 반복, 비이사인 엄정욱 신호제지 부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이유로 경영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호제지 최대주주인 아람FSI는 지분 25.7%(구조조정조합 13.7%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람FSI와 손잡은 2대주주인 국일제지는 19.8%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호제지 측은 "고문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람FSI의 태도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신호제지는 지난 8월초 아람FSI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한캐피탈 등이 경영진과 상의 없이 보유주식을 전부 국일제지에 넘기며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 삼원페이퍼갤러리, 삼원장학생 작품 전시



삼원페이퍼갤러리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 삼원장학생단 2005년 제3기 장학생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숙명여대 4학년 김혜진 학생의 '게매', 국민대 4학년 최준우 학생의 '한글만다라' 등의 자유주제 포스터 14작품과 대구대 3학년 김상천 학생의 '하나코비 락앤락 포스터', 전주대 4학년 박혜정 학생의 'Evolution' 등의 상업용포스터 8작품 및 성균관대 3학년 황인찬 학생의 '녹색총천' 등의 공익포스터 3종 등 총 25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와 관련 삼원페이퍼갤러리 측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총 25점의 작품으로 미래 디자인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디자인예술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 가 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3기 장학생을 선발한 삼원장학생단은 디자인 예술 및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인재육성을 위해 2003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장학지원사업 뿐 아니라 디자인 학술연구 및 전시문화 지원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